

## GLOBAL TREND

# 세계지방자치동향

### 미국

미국 아이오와주 North Liberty 시의 근린지역 엠버서더 프로그램

###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 산타 모니카 시 (City of Santa Monica) 가뭄 대비를 위한 지속가능한 수자원 시설 프로젝트

### 일본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에 관한 이용자 의식 및 이용실태 조사

### 독일

독일의 지역간 공동체와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실험

### 한국

민간역량 중개형 플랫폼 운영 -경기도 '배달특급' 사례



## 독일의 지역 간 공동체와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실험 - Regionale Open Government Labore

### “우리는 열린 정부의 원칙을 따른다 - 투명성, 참여, 협력”

- ▶ 독일 현 연방정부의 주요 기조 중 하나는 “열린 정부”로 투명성, 참여, 협력이라는 원칙 아래 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음
- ▶ “우리는 열린 정부의 원칙을 따른다”는 연립정부 수립 합의서(Koalitionsvertrag)의 첫 문장으로 연방정부, 주 정부 등 지방정부를 포함한 현재 독일 모든 정부 단위의 운영 방향성으로 작동하고 있음
- ▶ 이에 연방내무부는 지방행정은 주민과 시민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참여를 전제로 작동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으며, 최근에는 나아가 인접한 지방행정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음

### Regionale Open Government Labore

- ▶ 이러한 방향성과 더불어 독일 연방내무부에서는 2020년 지역 간 열린 정부를 위한 실험인 “Regionale Open Government Labore”를 시행하였으며, 2022년 12월 프로젝트가 종료되었음
- ▶ 프로젝트는 지역의 민주주의, 주민참여, 지역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최소 2개의 게마인데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독일 전역에서 13개 지역이 참여함
- ▶ 프로젝트의 목적은 지방정부가 보다 광범위한 ‘열린 지방정부’를 실현하는 것으로, 열린 지방정부(Kommunales Open Government)라는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열린 지방정부란 게마인데, 시, 크라이스 지역에서 다양하고 이동성있으며, 디지털화, 세계화 되어가는 사회의 이익과 요구, 그들의 능력을 위해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을 의식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sup>1)</sup>

- ▶ 프로젝트에 참여한 13개 지방정부와 단체는 무엇보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공동체 강화와 주민과 행정과의 소통을 주된 목적으로 설정하였음
- ▶ 예를 들어 작센(Sachsen) 주에서는 브란디스 시(Stadt Brandis)를 비롯하여 9개 인근 지방정부와 시민 단체, 대학, 기업 등이 참여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여 공동체간 사회적 협력과 사회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의 새로운 도서관 건설뿐만 아니라 개방형 플랫폼을 이용한 지역의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행정과 주민이 함께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였음

## 프로젝트 추진 사례

지역 및 참여 단체	대상 그룹	목적	내용
브란덴부르크 주 바트 벨치히 시(Bad Belzig) 외 7개 단체	시민, 시민사회 아동 및 청소년 행정 근무자	- 공동생산 - 개방형 디지털 기술 / 데이터 - 개방형 조직문화	-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시민이 정치/행정과 함께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 - 아동 및 청소년의 디지털 능력 강화 - 공공데이터와 새로운 참여 플랫폼을 통한 행정의 개방성과 투명성 제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바트 바를레부르크 (Bad Berleburg) 외 15개 단체	참여 지역 주민 관광단체 및 시설	- 공동 생산	- 행정과 관광산업, 시민사회가 지속가능한 관광지를 위해 협력
헤센 주 벤스하임 시(Bensheim) 외 12개 단체	시민, 시민단체, 기업 및 프리랜서, 개인 병원	- 공동 생산 - 투명성 - 변화/혁신 개방성	- 디지털 및 현장 구성 요소, 마케팅을 통한 부가가치 플랫폼 구축 - 소통과 협업을 위한 공동공간 구축 - 시민사회, 주택산업, 행정의 각 주체가 공동주택 프로젝트 전환을 위한 계획 추진 - 노년층에 대한 원격진료 제공
작센 주 브란디스(Brandis) 시 외 9개 단체	시민, 도서관, 행정 및 지역 단체	- 개방형 디지털 데이터 기술 - 공동 생산 - 투명성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사회협력 및 참여 강화 - 지역 도서관 조성 - 개방형 플랫폼을 이용한 지역의 환경데이터 수집 및 토론
브레멘 시 및 40여 단체	노년층, 봉사자 지역 네트워크 파트너 당사자, 행정종사자	- 공동 생산 - 투명성	- 노년층에 대한 디지털 교육을 통한 사회참여 지원 - 행정의 노년층에 대한 디지털 참여 필요 조사
바덴-뷔템베르크 주 텅겐(Tengen) 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시 외 6개 단체	행정 종사자, 디지털 종사자	- 변화/혁신 개방성 - 개방형 조직문화 - 공동 생산 - 토론중심 참여 - 투명성	- 프랑스 접경지역 통근 지원 - 디지털 역량을 갖춘 공무원 개발 지원 -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의 열린 조직문화
헤센 주 마부르크-비덴코프 (Marburg-Biedenkopf) 크라이스 외 3개 단체	시민, 사회단체 행정 종사자	- 토론중심 참여 - 공동 생산	- 시민을 위한 지역의 열린 정부 구축 - 주민 이익과 요구 지원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부의 시민 참여
작센-안할트 주 메르제부르크 (Merseburg) 시 외 5개 단체	시민, 행정종사자	- 변화/혁신 개방성 - 토론중심 참여	- 지속가능한 행정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시민의 토론참여 강화 - 시민의 디지털 참여 기회 제공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케르펜 (Kerpen) 시 외 4개 단체	시민	- 토론중심 참여, 개방형 디지털 기술 - 공동생산	- 시민 지역정치 참여 플랫폼 조성 - 시민, 정치, 행정 소통 강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클레베 (Kleve) 시 외 6개 단체	행정종사자, 시민사회	- 개방형 디지털 기술 및 데이터 - 공동 생산	- 지역의 공공데이터 사용과 수집 강화 - 시민의 공공데이터 사용 편의성 제공
바덴-뷔템베르크 하이델베르크 시 외 5개 단체	지역 시민 광역권 지자체 및 시민단체	- 공동 생산 - 변화/혁신 개방성 - 투명성	- UN 지속가능목표 디지털 및 아날로그 정보제공 - 행정간 지속가능성 정보 및 지식공유 - 시민사회 지속가능성 협력 강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에센(Essen) 시 외 3개 단체	행정 종사자	- 개방형 조직문화	- 개방, 혁신, 협력적 행정문화 조성
바이에른 주 뷔츠부르크(Würzburg) 시 외 5개 단체	시민, 행정 및 정치인	- 토론중심 참여	- 시민참여 플랫폼 앱 개발 - 플랫폼의 정치인/행정/시민간의 소통 강화

- ▶ 대부분 지역에서 목표로 하는 공동 생산(Co-Kreation & Co-Produktion) 이라는 개념은 지역주민이 공동체와 지역 행정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간 또는 공동체와 행정 간의 협력과 집단적 의사 결정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
- ▶ 2020년 프로젝트 초창기에는 팬데믹 상황에 직면하여 소통의 어려움이 있기도 했지만, 모든 참여단체가 디지털을 이용한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특히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 프로젝트 결과물 중 하나인 개방형 디지털 데이터 및 플랫폼은 지역의 자산이 되어 개방데이터 2차 가공을 통한 지역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도 하였으며, 주민들의 데이터 접근성 또한 증대되었음
- ▶ 특히, 이 프로젝트에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Strasbourg) 시의 참여로 접경지역에 위치한 텅겐, 켈(Kehl)과 스트라스부르 사이의 국가 간 통근, 통학 등 월경(越境)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경을 넘는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여 범국가 간 공동체 형성 및 열린 지방행정을 추구하고 있음

## 프로젝트 추진 결과 및 후속 추진

- ▶ Regionale Open Government Labore 프로젝트는 결과적으로 참여 지역주민과 공동체, 행정의 디지털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이 행정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였으며, 행정 내부의 조직 문화 또한 개방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 프로젝트 종료 후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50%이상의 관련 참여자들이 프로젝트가 가치 있었으며,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였다고 응답하였고,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었다는 의견은 50% 이하로 나타남
- ▶ 프로젝트는 2022년 12월 종료되었지만, 참여 지방정부와 단체들은 이미 구축된 플랫폼을 토대로 공동체 활동을 지속하고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지만, 시민의 행정참여 등을 지속하여, 투명성, 참여, 협력의 세 가지 방향성을 유지해 나아간다는 목표를 갖고 있음

## 시사점

- ▶ 독일의 Regionale Open Government Labore 프로젝트 사례는 행정 경계를 넘어서 지역이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사례임
- ▶ 오늘날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지역 또는 공동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독일의 사례는 광역권의 행정과 지역주민이 서로 참여하고 협력하여 서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참고자료

- 1) Regionale Open Government Labore. (2022), Regionale Open Government Labore 2020-2022. Projektbericht S. 10

---

**장인성** 통신원

drong85@naver.com

독일 아헨공과대학교 (RWTH Aachen University)